

군산대 캠퍼스 내 인공동굴 7기 본격 조사

인공동굴 '굴식조사 개토제' 성료... 역사·문화 길 위에 담아내는 미룡역사길 조성 추진

국립군산대학교 박물관(관장 박시균 국어국문학과 교수)이 군산대학교 캠퍼스 내 인공동굴에 대한 '굴식조사 개토제'를 성료하고 본격적인 굴식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8일 진행된 개토제에는 이장호 군산대학교 총장과 보좌자, 문승우 전북도의원, 김우민 군산시의원, 군산시 관계자 및 학교 구성원, 지역민 등 다수가 참여했다.

개토제는 2022년 2월 군산대학교 캠퍼스에서 발견돼 많은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인공동굴 7기에 대한 굴식조사의 첫 삽을 뜨는 행사이다. 군산대학교 캠퍼스에서 일제강점기 산물로 추정되는 7개의 인공동굴이 확인되었고, 이 가운데에는 6·25전쟁 당시 공산당에 의해 120여명의 민간인이 학살당한 아픔이 서려 있는 동굴도 포함되어 있다.

군산대학교는 국립대학육성사업비 7400만 원을 투입하여 인공동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지표 물리탐사를 통해 인공동굴의 동공의 범위를 확인했고, 위치가 특정되지 않았던 7호 동굴의 위치를 찾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군산대학교는 현재 상태가 양호하고 내부 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1, 2, 7호 동굴의 굴식조사를 실시하고, 굴식조사 후 안전점검을 통해 내부 진입이 가능한 동굴은 3D스캔 등 내부 정밀조사를 통해 정확한 기록을 남길 계획이다. 또한 임시 개폐시설을 설치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할 계획이다.

6·25전쟁 민간인 학살터로 사용되었던 6호 동굴은 대부분 무너져 발굴조사에 준하는 조사를 실시한다. 이 동굴은 과거사 정리를 위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유해매장 추정지 실태조사 및 유해발굴 중장기 로드맵 수립 조사 용역 최종 보고서(2021)에 잠재적 발굴 가능지로 선정돼,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김우민 군산시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성과도 거두었다.

인공동굴에 대한 조사는 태평양전쟁 당시 군산의 군사적 역할과 조선인 강제 동원 등에 대한 연구와 6·25전쟁 민간인 학살에 대한 연구 자료로서 매우 중요하며, 교육자원으로서의 활용



국립군산대학교 박물관이 군산대학교 캠퍼스 내 인공동굴에 대한 '굴식조사 개토제'를 성료하고 본격적인 굴식조사에 착수했다.

용과 보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군산대학교는 '이야기가 있는 캠퍼스-미룡역사길' 프로젝트를 통해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길 위에 담아내는 스토리텔링 탐방로를 추진하고 있다. 인공동굴은 이 탐방로의 중요 테마로, 인공동굴의 굴식조사의 시작을 알리는 개토제는 미룡역사길의 출발을 의미한다.

현재의 미룡캠퍼스가 자리하고 있는 곳은 관여산으로, 관여산은 군산의 서쪽에서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 서해 바람의 병풍 역할을 하는 산줄기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미룡캠퍼스는 1980년 흥남동 캠퍼스에서 이전)

관여산은 수 천 년의 흐름 속에서 많은 역사적 사실과 문화유산, 교육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관여산 정상에 따라 1,800여 년 전 마한시대의 수장총 무덤들이 자리하고 있고, 군산대학교 중앙도서관을 감싸고 있는 산줄기 비탈에는 고려시대 고분군이 즐비하게 남아 있다. 이 고분군은 문화재 지정이 논의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유적지이며, 현재 고분군에 대한 꾸준한 발굴조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관여산 정상은 옥구평야와 옥구저수지 등 일제강점기에 변모한 군산의 서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천혜의 장소이다.

또한 해양과학대학 양어장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와어흔비가 있다. 수산실습으로 사용된 수산생물들의 흔을 달래 주고자 1963년 시작되었던 와어흔비와 와어흔제는 바다를 품고 있는 군산의 지역성을 보여주는 귀한 교육문화유산이다.

박시균 박물관장은 "인공동굴 및 다른 역사문화유적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보존 및 개발이 잘 이루어진다면 미룡역사길은 군산지역에서 유례없는, 이야기가 있는 탐방로로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 중요한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전라북도, 군산의 역사가 모두 녹아있는 부분을 다루는 것이기에 군산대학교뿐만 아니라 군산시와 전라북도가 함께 힘을 합하고 더 나아가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장호 총장은 "군산대학교 내 인공동굴 7기와 미룡역사길은 선사시대부터 근대사까지를 아우르는 다층적인 유물과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곳으로, 역사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큰 곳이다"면서, "군산대학교는 인공동굴을 포함한 미룡역사길을 창의적으로 개발하여 군산지역의 다층적인 문화적, 역사적 유산들을 더욱 많은 지역,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근 기자

장수군,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 공모 선정

장수군이 '2023년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은 문화 환경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완화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2022년부터 추

진하는 사업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총 6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공모가 진행됐으며 장수군이 최종 14개 지역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군은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군민들에게 한층 더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오는 2월부터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지역 환경에 맞는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된 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문화로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문화콘텐츠 발굴을 통한 관광 자원화를 통해 머물고 싶은 장수,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장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칠연의 예술혼 전' 전주서 특별 기획전시회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작가들, 31일~2월 13일 작품 전시

예술창작의 요람,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소속 작가들이 전주에서 특별 기획전시회를 열어 관심을 끌고 있다.

첩첩산중 덕유산 자락에 위치한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에서 창작 예술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시골 예술인들이 전주 한복판에 자리한 청목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전시회는 청목미술관이 전북도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마련한 기획전시회로 전시 기간은 31일부터 2월 13일까지 2주간이다.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는 무주군이 문화예술인에게 예술창작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01년 폐교된 공정초등학교를 활용해 개관한 작업실로 현재 9명의 작가가 자신만의 공간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무주군 덕유산 골짜기 칠연계곡을 따서 '칠연의 예술혼 전'이라는 주제로 여는 전

시회는 시골작가리지만 예술계에서는 내노라하는 쟁쟁한 멤버가 포진돼 있다.

최원(서양화) 관장을 비롯해 나순녀(자수공예), 나운재(도예), 선환두(한국화), 안영욱(린넨인형공예, 생활도자기), 양규준(서양화), 이운승(사진), 이호영(서예) 작가 등이 그 주인공이다.

참여 작가들은 매년 개인전과 삼인 삼색전, 공동 전시회 등을 열어오면서 산골 한지붕 밑에서 작품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최원 관장은 "무주군에 예술적 기초를 세워서 무주를 예술의 고장으로 만들고 싶다"며 "운영의 안정화가 이뤄지면 겨울의 왕국으로 불리고 있는 무주에 아름다움을 담은 '국제 겨울 미술제' 등 대규모 행사를 꿈꾸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황실문화재단-한국전통문화전당 '맞손'

한복 진흥·전통문화 발전 협력

(사)황실문화재단과 한국전통문화전당이 한복문화 활성화 등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황실문화재단은 지난 26일 오후 2시 전당 4층 세미나실에서 김도영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이석 황실문화재단 이사장, 주재민 황실문화재단 초대이사장, 최권상 전주지회장, 최인호 전북지회 사무처장, 최미경 전주지회 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문화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한복 진흥과 황실문화 활성화 등 다양한 전통문화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문화 콘텐츠 제공 및 활용 △시설의 이용 및 편의 제공 △기타 다양한 교류와 상호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오는 2월 하순경 예정된 한복문화창작소 개소식과 더불어 지역의 한복문화 진흥과 발전, 나아가 대한민국의 황실문화와 한복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석 황실문화재단 이사장은 "2003년 처음 전주에 왔는데, 이런 협약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조선왕조 500년이 발상지이기도 한 전주는 그 어느 곳보다 역사인식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 요구되는 곳이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전주의 전통문화 진흥, 그리고 전통의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손을 맞잡겠다"고 말했다.

김도영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황실문화재단 이사장님께서 전주에 주석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전주는 왕도(王道)라 말할 수 있다"며 "한지·한식·한복·수공예·전통놀이 육성·보존하고 있는 전당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500년 조선 황실의 위엄과 정체성이 담긴 황실문화, 귀족문화의 아미를 융합, 개성 있고 특색 있는 전주문화로 승화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